



봉안 50주년을 맞이한 호미든 관세음보살상.

민중·생활 불교 반세기 동안 '호미질'

4월 5일 경남 김해 정토원서 '관세음보살상 봉안 50주년 기념법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악화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요즘이다. 국회는 민생돌보기는 뒷전이고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일삼고 국민들은 경제난과 지도자의 부재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때 경남 김해시 봉화산 정상에 '호미 든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한 불교도들이 50년 만에 다시 모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관세음보살상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손안식·관오현)는 3월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관

세음보살상 봉안 취지를 되새기고 의의를 재조명하면서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세미나 외에도 기념사업으로 4월 5일에는 경남 김해 정토원에서 봉안 50주년 기념대법회를 불행하고 <불타의 삼대선언>발간, 기념 시 낭송회 등을 개최한다.

세미나는 서울길 동국대 명예교수가 진행하고 권기중 원장(원각 불교사상연구원)이 교리적 측면에서 '노동과 생산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봉춘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호미 든 관음상 봉안의 불

교사적 의의'를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가 '실천불교의 사회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오현 前 불교방송 전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장봉호 불교문학 편집위원장, 김형중 동국대부속여중 교장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생존권의 상징도구인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상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 불교학도 31인이 '불교가 민중을 선도하고 일깨워 민족 생존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뜻을 모아 1959년 4월 5일 경남 김해 봉화산 정상에 봉안했다.

선진규 정토원 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50년 전, 독재정권 아래 남북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에서 국민들은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어가는데 불교계는 어려움을 보살펴야 할 상황임에도 비구, 대처들의 피나는 분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다시 불교와 사회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 원장은 "봉안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불자들이 불교계의 변혁을 이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55)342-2991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길벗' 특별열린법회 정토회 예술인들의 마음공부 모임



'길벗' 법회현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비롯한 방송예술인들이 직접 현장 스태프로 활동한다. 안내를 하고있는 탤런트 배종옥씨(사진 왼쪽).

정토회 방송·연극·연예·작가·문화 예술인들의 마음공부 모임인 '길벗' 특별열린법회가 3월 2일 서울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에는 노회경 작가, 영화배우 김여진, 탤런트 배종옥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행사 진행 스태프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길벗 모임을 이끌어가는 노회경 작가는 "경제로 행복해지기는 힘들 것 같다"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스님의 법문이 답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법륜 스님(사진)은 즉문즉설을 통해 "이의를 지나치게 따지면 그만큼 손실이 따르니 이의를 논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다만 최선을 다하라"며 결혼과 자아실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또 "원을 세울 때에는 실현 가능한 원을 세우되 꿈과 욕심의 차이를 분명히 하라"며 "부처님의 말씀은 자



유와 행복을 전달하는 것으로 항상 남을 돕겠다는 생각과 내가 먼저 변하겠다"는 생각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또 외로움에 대한 질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항상 외롭기 마련"이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깊은 산 속에 홀로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륜 스님은 이웃 종교에 대한 인정의 자세, 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 화를 다스리는 자세 등에 대해서 말했다.

이상연 기자

2009 마을에서 길을 찾다

노동공동체 인드라망, 실상사 귀농교육 시작

IMF 이후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위한 귀농교육을 추구하는 산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가 다시금 노동 공동체의 길을 밝힌다.

인드라망은 2월 28일 2009정기 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활발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의 주인이 되자'는 모토 아래 진행되는 이번 사업으로는 △인드라망수련원 귀정사 정례회 △생명살림(마을) 기금 마련 △남원 산내마을 외제2 실험지 정착 △'지리산 작은마을' 조성 △실상사 교육도량 불사 △대중교육 '실'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생명에 맞게 살겠습니다' 등 인드라망 100대 청

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11년째를 맞는 실상사 귀농학교는 3월 20일 까지 22기 교육생들을 모집한다. 실상사 귀농학교는 도시민을 위한 불교귀농학교, 장기 체류형 현장귀농학교와 더불어 귀농 3대 주요 교육프로그램이다. 그간 35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현재 60% 가까운 귀농으로 농촌공동체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3월 28일부터 9주 동안 참가자들은 귀농학교에서 모심기, 농기계 다루기 등 기초농법부터 유기농 원예농업, 한우 영농 등 농사방법을 배우고, 각 지역농업 특화현장을 답사하게 된다. (063)636-4325 노덕현 기자

'제30회 만해백일장' 역대 최대 인원 참가

수상시 대학입학 혜택...매년 참가자 늘어



3·1절 기념 '제30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유보리, 전소영 학생과 심사위원 등이 동국대학교 만해사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가 3월 1일 3·1절 90주년을 기념해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30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번 백일장은 '발' '길' '용돈' '예감' '잊지 못할 사람' 등을 시제로 시·시조부문과 산문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역대 최대인원인 1655명의 청소년·일반인들이 글 솜씨를 발휘한 가운데 시·시조 부문에서 '법주사로 가는 길'을 쓴 유보리(충남여고

3)학생과 산문 부문에서 '발 한 술갈의 세상'을 쓴 전소연(산내마을고 2)학생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희성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문학은 넓은 세계와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관념적, 관습적, 상투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개성적, 독창적,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행사에 앞서 정웅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은 외부적으로는

●평창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사 모집=평창 월정사는 3월 11일까지 제2기 단기출가학교 행사를 모집한다.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한달 간 행사체험을 하고 단기출가학교 수료 후 출가를 원할 경우 정식 행자로 등록 가능하다. 월정사 홈페이지로 접수 받으며 50명 선별한다. (033)332-6661

●나주 불회사 '천수다라니 만념기도' =나주 불회사는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불회사 천수전에서 천수다라니 만념기도를 실시한다. 동참금은 자유부시. (061)337-3440 www.bulhoesa.org

●대전 연방죽선원 '위빠사나 수행' =대전 연방죽선원은 3월 15일부터 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사파리파티나 위빠사나수행을 진행한다. 매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조티카스님의 저서 <수행지침 마음의 지도>로 답타트코를 읽고 오후 2시부터는 수행지도도 실시한다. (010)3214-1255

●제따나와선원 '경전독송모임' =제따나와선원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 경전독송모임을 실시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불교 심리치료와 대화명상 프로그램 매달 첫째, 셋째 일요일에는 특별법회, 영어법회를 개최한다. (02)595-5115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모집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가 4월 10일까지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모집한다. 파라미타는 2월 14일 열린 총회에서 올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앙

파라미타에서 신청을 일괄접수한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계획 1부,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단 활동 신청서 1부를 작성해 4월 10일까지 중앙파라미타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02)723-6165 이상연 기자

불교 미술인들의 새로운 등용문

불화·서각·서예·민화 작가들에 '주목' 제 4회 한반도 미술대전

- 공모부문 : 불화(선목화)·한국화·수채화·서양화·서예·문인화·서각·민화
우리 전통문화 예술이 깃든 창작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1일(토) (우편접수 3월 2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작품규격 : 불화는 20×25cm 이상 사진(2매)접수 심사 가능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민화, 불화, 서각은 60이하내
서예·문인화 70×135cm이하 미표구 / 전각 영인본 70×100cm이하 미표구
- 출품료 : 1인 3점 이내, 1점 40,000원(2점 60,000원, 3점 80,000원)
(출품료 입금처: 농협 210-01-266783 / 예금주: 한반도문화예술협회)
- 원서교부 : 2009년 2월 1일부터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다운로드 사용]
- 접수처 : 한반도미술대전사무국
(220-938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세경 3차아파트 상가 207호 전화 1644-6065)
- 전시기간 및 장소 : 2009년 4월 17일(금) ~ 4. 22(수) 치악예술관
- 심사발표 : 발표 2009년 3월 24일 [홈페이지 http://www.hanbandoart.co.kr 일간지, 개별통지]
- 시상 : 대상 강원도지사상 1명 상금 300만원(매입상) - 최우수상 1점 상금 100만원(매입상)
- 우수상 10명 상금 각 30만원 - 특선·입선 약간명
- 특전 : 우수상 이상 작품, 본 협회 초대작가, 운영위원 작품은 해외전시 예정
- 2007년 '일본 오사카전시, 2008년 필리핀 마닐라 미술협회와 교류전 전시 하였음
- 문의 :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사무국
Tel 1644-6065 H.P 010-5795-9006 Fax 033)763-6065
H.P 011-735-9178 불화분과장 김진구

주최 | 사단법인 한반도문화예술협회 주관 | 한반도미술대전 운영위원회 후원 | 강원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원주투데이, GTB강원방송, YBN영서방송, 취송산방 & 기획

대한불교원효종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수 공고

서울고등법원 2009. 3. 4 2009비합4 종회의원선출허가 결정에 따라 종회법 제 3조 다음과 같이 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각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 수를 공고합니다.

교 구	배정 의석수
서울	1
부산	3
충남대전	1
울산	4
대구	1
인천경기	1
강원	2
충북	1
전북	1
전남	2
광주	2
경북(경북남포함)	3
경남(서부경남포함)	2
제주	1
계	25

2009년 3월 10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용일

종회의원 선거 공고

서울고등법원 2009. 3. 4. 2009비합4 종회의원선출허가 결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합니다.

- 종회법 제6조 의거 각 교구 선거위원회의 구성
●일시 : 2009. 3. 12(목) ~ 2009. 3. 16(월)
- 종회법 제7조 의거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일시 : 2009. 3. 17(화)
오전 9:00 ~ 2009. 3. 23(월) 오후 6:00
●장소 : 각 교구 선거위원회
-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의거 종회의원 전형
●일시 : 2009. 3. 24(화) ~ 2009. 3. 25(수)
- 종회법 제9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전형 결과보고 및 관계서류 발송
●일시 : 2009. 3. 26(목)
- 종회법 제 10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부 판정
●일시 : 2009. 4. 2(목)
- 종회법 제 11조, 제 12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확정 공고
●일시 : 2009. 4. 3(금)

2009년 3월 10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정 향운